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07	11. 14	11. 21
대표 기도	통성기도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성경 봉독	김민혜 자매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오늘은 504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2. 감사 - 설교해주신 맹기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예배 전 찬양 -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4.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육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5.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만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종교개혁주일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54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눅 5 : 1 - 11(신p95) 정용현 안수집사
(Lukas 5:1-11)
- 설 교 Predigt 믿음의 여정 맹기현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543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정용현 안수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 축 도 Segnungsgebet 맹기현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통성기도

† 다음 주일 성경봉독 담당 : 김민혜 자매

하나님의 뜻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서로 주고 받을 때 "D. V."라는 문구를 마지막 서명과 함께 기록했다고 합니다. D. V.는 'Deo Volente'의 약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타고난 재주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익혀 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Deo Volente의 정신입니다. 선순종 즉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는 불행이나 고통을 예기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방어운전을 해도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회도로를 돌고 돈 후에 뒤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대해 다 알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보다는 그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 삶속에서 드러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 류인현 목사
(뉴프론티어교회 담임)

*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요 옹호자가 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 Roy Zuck(달라스신학교 명예교수) -